제주, 항공정체 풀릴듯 원주,강릉 노선 신설

항공수요의 급증으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항공노선에 올 상반기 안으로 신규 노선이 개설되거나 증편될 계획이어서 정체현상이 다소 풀릴 전망이다.

도내 항공사와 건교부 제주항공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올 2,3월께 제주~원주, 제주~강릉 노선이 새로 개설돼 하루 2차례씩 운항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청주공항이 개항되면 제주~청주 노선에도 하루 2차례씩 운항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목포, 제주~여수, 제주~울산 노선등은 하루 2차례에서 3차례로 증편 운항된다.

IFEO, 항공기 안전 증진 방안 제시

국제항공기술자협회(IFEO)는 급증하고 있는 항공 사고 사망자수에 대처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선정·제시하였다.

지난해 개최된 정기 회의에서 동 협회는 전 세계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항공 사고 상망자수에 대해 '후회와 당혹감을 표명하였다. '96년 11월 1일까지 12개월간 민간 항공과 관련된 사고를 통해 기록된 사망자 숫자는 10년간의 연 평균인 1,000명에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IFEO의 회장인 마이크 홀리어는 동 협회는 정부, 항공사, 항공 기관들이 이러한 무서운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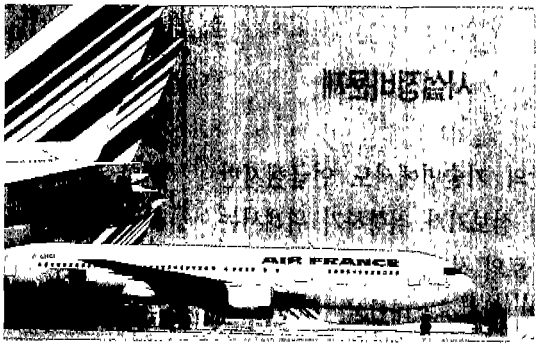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제안은 조치가 '긴급히 요청되는' 몇 개 분야를 열거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공기 승무원과 항공 교통 관리자의 초기 및 주기적 훈련 기준의 향상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지원 조항
- ▲특히 터미날 지역에서의 무선 및 레이다 영역을 포함하는 기본시설의 개선
- ▲ICAO의 부록 13개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사고 및 중대한 사건 조사 절차의 확립
- ▲항공산업계에 걸친 모든 부문에서 나오는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의 공유
- ▲화물기를 포함하는 모든 정기 항공기에 교통 경보(traffic-alert) 및 충돌 방지 시스템을 장착시키는것

에어 프랑스, 보잉 777 20대 계약

프랑스 정부는 에어 프랑스사의 장거리 항공기 교체 계획의 일부로써 보잉 777기 20대(옵션을 포함)의 구매 결정을 승인했다. 동 항공사는 또한 5대의 에어버스 A340기를 주문했으며, 만약 에어버스의 제안이 우리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엔진을 교체한 A340-600 스트래치기를 주문할 것이다.

에어 프랑스사의 Christian Blanc사장은 항공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결정의 일부로써 보잉사의 쌍발기를 주문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지만, 모두 에어버스기로 주문하길 바라는 정부 관리의 반발에 부딪쳤다. 동 항공사는 제너럴일렉트릭의 추력92,000lb급 GE90엔진을 탑재한 10대의 288인승 777-



에어 프랑스는 보잉사의 쌍발기를 추가로 주문할 것이다

200IGW기를 구매할 것이며, 옵션은 10대이고 인도는 '98년부터이다.

지난해 6월 동 항공사는 에어버스사와 최초 14대에 대한 계약 가운데 나머지 5대의 A340기의 주문을 마친바 있다.

印尼, 국영 가루다 항공 주식공개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국영 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의 민영화가 '98년 12월로 계획되었다.

처음 대중에 공개될 양은 확실치 않지만 항공사측과 정부 관리들은 25-30% 지분의 매각을 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얼마나 많은 지분이 외국의 구매자들에게 팔리는가에 달려있다. 정부는 최소 51%의 지분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장관은 '우리도 역시 다른 국제적 항공사들과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후보자로는 이미 가루다와 코드쉐어 협정을 맺고 있는 루프트한자나 KLM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주식공개를 대비하기 위한 항공사의 대대적 구조 개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가루다의 최우선 순위로는 높은 수준의 채무를 줄이는 데 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동 항공사의 채무를 7억4천5백만 달러로 추산했는데, 이것은 과거 항공기 구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가루다는 에어버스, 보잉, 맥도널더글라스와의 현금 주문들을 재협상을 통해 항공기 임대로 타협을 보았으며, 747-400에 대한 주문을 이보다 작은 777과 737로 바꾸고, 최초 A330-300기의 인도를 지난 12월로 연기시킨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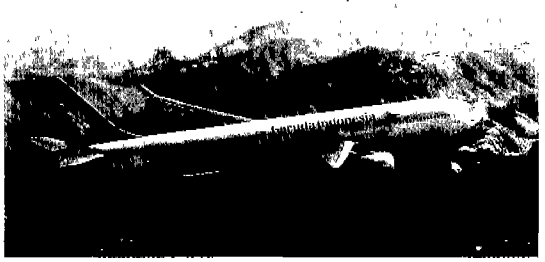
美, 델타/컨티넨탈항공 합병조건 고려중

미국의 델타항공과 콘티넨탈항공은 그들이 세계 최대의 항공사를 구성하게 될 합병을 협상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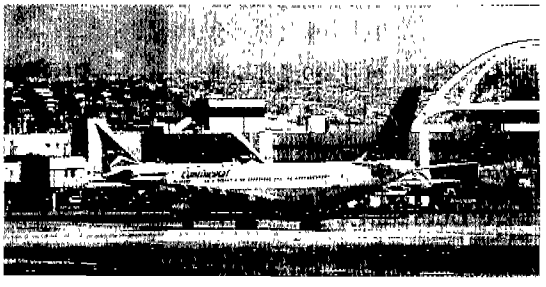
몇 개월전에 컨티네탈항공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회담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단순한 옵션이 고려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망은 신용 평가 기관들이 동 항공사들을 주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델타항공은 활발한 비용 삭감 방안의 도입과 최근 사업을 시작한 100인승 제트여객기를 운용하게될 저비용 자회사인 '델타 익스프레스'에 힘입어 유리한 현금 사정에 있다.

'90년 초에 파산 보호 압력을 받은 항공사중의 하나인 컨티넨탈항공은 Air Partners LP investment group에 의해 운영돼왔다. 위험한 고비를 넘긴 후부터 컨티넨탈의 자금 사정은 호전되기 시작하였고 '95년에는 기록적인 이윤을 남기기도 하였다. 델타에 의한 컨티넨탈의 인수 조짐은 미국 항공 업계에 새로운 합병붐을 불러일으켰다.



가루다가 주식공개에 대비하기 위하여 A330기의 인도를 뒤로 미루었다



델타와 컨티넨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